‘원격수업 사각지대’ 장애 대학생 학습권 보장

교육부, 보조공학기기 15억 투입

장애 대학생 복지 우수대학 선정
점자정보단말기 등 구매비 지원
107개 대학에 평균 1500만원씩

교육부가 장애대학생 위해 ‘원격수업 보조공학기기’ 구입비를 대학에 지원한다. (위)점자정보단말기. 탁상용 확대 독서기. /교육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대학 원격수업이 확대되면서 원격 수강하는 장애대학생의 학습권 강화를 위해 정부가 신학기 원격수업용, 보조공학기기 구매 비용을 지원한다.

교육부와 국가평생교육진흥원은 16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1년 장애대학생 원격수업 수강지원 사업 기본계획’을 발표했다.

이번 사업은 코로나19로 확대된 비대면 수업 상황에서 장애대학생이 어려움 없이 학습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올해 처음으로 추진된다.

사업은 ‘2020년 장애 대학생 교육복지지원 실태평가’ 결과 평가 등급 최우수, 우수 등급을 받은 107개 대학을 대상으로 한다. 일반대학 85곳, 전문대 9곳, 산업대 1곳, 원격대학 10곳, 교육대학 2곳이 해당한다.

지원 예산은 총 15억원이다. 해당 대학에 시각장애인용 점자정보단말기, 지체장애인용 한 손용 키보드 등 장애유형별 원격수업용 보조공학기기를 갖출 수 있도록 대학당 평균 1500만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대학 평가는 3년 단위로 이뤄진다. 각 대학의 교수·학습, 시설·설비 여건에 대한 대학 자체 평가보고서를 토대로 등급을 판정한다. 100점 만점에 90점 이상이면 최우수, 80~90점 미만이면 우수등급이다.

지원 대상이 되는 대학은 장애대학생의 수요를 고려해 구비를 희망하는 보조공학기기 목록과 소요액 등을 파악해 오는 26일까지 사업 전담기관인 국가평생교육진흥원으로 신청하면 된다.

신청 결과를 바탕으로 장애대학생 수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대학별 지원 규모를 결정할 예정이며, 대학은 지원금을 받아 원격수업용 보조공학기기를 갖춰 자체 규정에 따라 장애대학생에게 기기를 대여하는 등 지원에 나설 방침이다. /이현진 기자 lhj@metroseoul.co.kr

유치원 급식 학교처럼 관리
조희연, 市에 무상급식 제안

〈서울교육감〉

서울시교육청 ‘유치원 급식 계획’

위생·안전관리 체계 구축
안심급식 전문인력 지원
“학교처럼 무상급식 필요”

올해부터 유치원 급식 종사자들이 위생 교육을 받는 등 유치원 급식 관리가 강화된다. 앞으로 서울 내 원아 100인 이상 유치원은 영양교사와 관련 분야 교수 등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안심급식 지원단’을 운영하고, 위생·안전관리 기준 준수 여부를 공무원이 확인한다. 또한, 서울 내 초·중·고등학교에 이어 유치원까지 전면 무상급식 도입이 추진될 전망이다.

조희연 서울시교육청 교육감은 이날 학교급식법 시행령 개정으로 유치원도 학교급식 대상에 포함된 데 따른 인력·조리기구 지원, 안전관리체계 구축 등 내용을 담은 ‘유치원 안심급식 종합계획(2021~2025)’을 발표하고 이같이 밝혔다.

이는 유치원3법 중 하나인 학교급식법이 지난달 30일부터 시행된 데 따른 후속 조처다. 서울시교육청에 따르면 전국 모든 국·공립유치원과 원아 100명 이상 사립유치원을 학교급식 대상에 포함해 강화된 위생·안전·식재료 관리 기준을 적용하고 전문인력을 배치하도록 한 학교급식법 시행령 개정안이 지난달 26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30일부터 시행됐다.

서울시교육청은 추가경정예산 편성 등을 통해 올해 약 117억원의 예산을 투입할 계획이다. 지난해 경기 안산 유치원과 같은 집단 식중독 사고가 없도록 위생과 안전 관리 체계를 구축할 방침이다.

이번 계획은 이들 유치원의 급식실을 정비하는 등 학교급식 수준의 기반을 조성하고, 위생과 안전 관리 체계를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급식 조리 기계·기구 확충 ▲안심급식을 위한 전문인력지원 ▲유아 영양관리 지원 시스템 운영 ▲유치원 급식 위생·안전 관리 체계 구축 ▲소규모 유치원 급식관리 협력 체계 구축 ▲안심 식재료 구매관리 6개 세부 중점과제로 구성돼 있다.

학교급식법 대상에 포함된 서울 유치원은 총 514개원이다. 공립 병설 212개원, 단설 42개원과 사립 260개원이다. 원아 수 100명 미만인 사립유치원 265개원은 법 적용을 받지 않는다.

공립유치원과 원아 수 200명 이상인 사립유치원은 영양교사를 반드시 1명은 배치해야 한다. 원아 100명 이상 200명 미만 사립유치원은 영양교사 1명을 함께 쓸 수 있다. 하지만 지난해 경기 안산 유치원 집단식중독 사태로 제도가 강화되며 2개원까지만 공동 배치할 수 있다.

또한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또한 전에 유치원에 무상급식이 도입돼야 한다며 서울시장 보궐선거에 출마한 후보들에게 유치원 무상급식을 최우선 의제로 선정하고 서울시교육청과 조속히 협의 틀을 마련해 달라고 제안했다고 밝혔다. 유치원 무상급식에는 연간 800억원이 넘는 예산이 소요될 전망이다. /이현진 기자

고졸 인재 양성 ‘직업교육 혁신지구’ 선정

교육부 부산·인천·대구 등 5곳

교육부는 직업계고와 기업, 대학, 지자체, 교육청이 협력해 지역 산업 발전을 선도할 고졸 인재를 양성하는 직업교육 혁신지구 5곳을 신규 선정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사업에는 총 12개 지구가 각 지역의 전략 산업 분야에 대한 직업교육 혁신지구 지정을 신청했고, 혁신지구의 교육과정의 구체성과 실현가능성 여부와 지역 전략 산업 분야의 적절성, 교육청-지자체 협력체계, 예산·인력 확보와 조례 제정 가능성 등이 평가됐다.

평가 결과 부산광역시, 인천광역시, 대구광역시, 경남 사천시·진주시·고성군(연합), 충남 천안시 등 5개 시가 선정됐다.

지구별 사업계획에 따르면, 부산은 직업교육 혁신지구 지원센터를 부산시청사내에 설치하고, 시청·교육청·유관기관에서 전담인력을 배치해 지자체-교육청 간 관리체계 구축의 우수 사례를 제시할 예정이다. 인천은 혁신지구 교육과정을 통해 연간 ‘항공 수리·정비·개조’ 분야 50명, 바이오 분야 50명을 배출키로 했다. 지역 대학에서 조기취업형계약학과 등을 운영하며 지역기업 중 삼성바이오로직스·셀트리온 등 유수기업이 참여한다.

대구는 단기적으론 전문학사·학사 등 재직-후학습 병행 학위 과정을 지원하고, 중장기적으로 정규 학위 과정으로 확대하며, 학위 취득 후 직무 재배치, 호봉 재획정 등을 통해 경력을 인정하는 등 혁신지구 교육과정 이수 재직자에 대한 후학습 지원에 적극 나설 계획이다. /세종=한용수 기자 hys@

숙명여대 대학일자리센터가 인공지능(AI) 면접 솔루션을 시연하고 있다. /숙명여대

숙명여대 대학일자리센터 운영 5년연속 ‘우수’

비대면 진로·취업프로그램 등 운영

숙명여대가 지난 2016년부터 5년 연속 고용노동부로부터 대학일자리센터 우수 운영 대학에 이름을 올렸다.

숙명여자대학교는 고용노동부의 ‘2020년도 대학일자리센터 대학 운영 성과평가’에서 가장 높은 등급인 우수 대학으로 최종 선정됐다고 16일 밝혔다.

이로써 숙명여대는 지난 2015년 말 시범대학 선정 이후 2016년~2020년까지 5년 연속 우수대학에 뽑히는 결과를 달성했다.

대학일자리센터는 저학년부터 전공별 직업경로에 기초한 진로지도를 강화하고, 대학을 통한 종합적인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고용노동부가 지원하는 사업이다.

숙명여대는 2016년부터 2020년까지 총 5년간 사업으로 운영했으며, 3년 이상 우수등급 평가를 받아 2021년까지 사업이 1년 연장되는 인센티브를 받았다.

숙명여대 강주현 경력개발처장은 “지난해 코로나 대유행으로 대면 형식의 취업 프로그램 운영이 어려웠으나, 비대면으로 발빠르게 대처해 학생들에게 진로취업 프로그램을 다양하게 지원해 만족도를 끌어올렸고, 인공지능(AI) 솔루션과 온라인 멘토링 도입 등을 통해 Z세대의 니즈를 만족시켰다”며 “앞으로 숙명여대가 보유하고 있는 우수한 진로·취업지원 시스템을 재학생은 물론 졸업생들과 지역 청년들에게 확대해 청년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겠다”고 밝혔다. /이현진 기자

아주대, 코이카 사업 선정 신규 석사학위 과정 개설

아주대가 한국국제협력단 석사학위 연수 신규 사업에 선정돼 20억원의 사업비를 받아 ‘아시아 시민사회 리더십’ 분야 석사학위 과정을 운영한다.

아주대학교는 한국국제협력단(KOICA)이 주관하는 ‘아시아 시민사회 리더십’ 분야 석사학위 과정의 운영 대학으로 선정됐다고 16일 밝혔다. 2021년부터 2025년까지 5년 동안 약 20억원의 국고 지원을 받게 된다.

이에 따라 아주대 국제대학원은 개발도상국의 발전을 주도할 핵심 인재 양성을 위해 ‘아시아 시민사회 리더십’ 분야 석사학위 과정을 운영을 시작한다.

경쟁입찰을 통해 교육 운영 기관으로 선정된 아주대 국제대학원은 올해부터 5년간 세 번의 교육과정을 운영하며, 각각 15명씩 총 45명의 학생들을 선발해 교육한다. 교육 과정은 아시아 주요 개도국의 시민사회 발전과 글로벌 협력체계 구축을 위한 인적 역량 강화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연수생들은 17개월 동안의 교육 과정을 통해 ‘시민사회학석사(시민사회리더십)’ 학위를 취득하게 된다. /이현진 기자

병해충 관리·검역 특수대학원 만든다

전북대·경북대·전남대에 설립

전북대·경북대·전남대에 농작물 병해충 관리와 검역 분야 특수대학원이 설립된다.

농림축산식품부와 농림식품기술기획평가원은 농식품기술융합창의인재양성사업 2021년 신규사업자로 전북대와 경북대, 전남대 3개 대학 컨소시엄을 최종 선정해 올해부터 3년간 60억원을 지원, 농작물 병해충 관리 및 검역 분야 전문인력 양성에 나선다고 16일 밝혔다.

농식품부는 작년부터 전문인력이 부족하거나 높은 전문성을 요구하는 분야를 대상으로 현장 맞춤형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해 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사업을 통해 해당 대학은 특수대학원을 설립해 현장 전문가 양성을 위한 석사 과정 교육을 담당하고, 농식품부는 인력양성에 소요되는 교육비와 교육인프라 확충, 연구비 등을 지원한다. 지난해에는 스마트농업과 동물감염병 2개 분야에 충남대, 충북대를 각각 선정해 2023년까지 분야별로 80억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세종=한용수 기자

인천대, ‘장애 대학생 교육복지 지원 평가’서 최우수

인천대가 교육부로부터 장애대학생 교육복지 ‘최우수’ 대학에 꼽혔다.

인천대학교는 교육부 주최, 국립특수교육 주관 ‘장애대학생 교육복지지원 실태평가’에서 ‘최우수’ 등급을 받았다고 16일 밝혔다.

인천대는 평가에서 91.33점으로 전체 대학 평균 70.9점 및 국공립대학 평균 78.5점보다 큰 차이로 높은 점수를 기록하며 최우수 등급을 받았다.

인천대는 지난해부터 특수교육대상자 특별전형을 확대해 매년 40개 학과에서 총 41명의 장애대학생 선발하고 있으며, 다양한 교수와 학습지원체제를 갖추고 대학 생활 편의를 제공한다. /이현진 기자